

조중연합사(朝中聯合司)가 ‘조선인민군’의 재편성에 미친 영향

金泰賢*

1. 머리말
2. 조중연합사의 기원
3. 연합체제의 갈등과 발전
4. 조선인민군의 재편성
5. 맺음말

1. 머리말

조중연합사(朝中聯合司)는 1950년 12월 초에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과 조선인민군의 지휘를 단일화시키기 위해 창설된 연합 지휘기구이다. 팡덕회(彭德懷)는 3차 전역시부터 조중연합사를 통해 모택동(毛澤東)과 스탈린의 전쟁지도 지침을 군사전략으로 구현함으로써 공산권 세력을 통합하여 전쟁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중연합사는 유엔군에게 치명적인

* 국방대학교 박사과정

타격을 입히고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한 북한을 구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쟁수행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조중연합사가 북한의 정치-군사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을지는 '한미연합사'체제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동맹의 결성은 양국관계를 돈독히 결합시키며 상호 제도와 문화에 우호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다. 특히 1950년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낙동강 전선과 서울 방어선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조선인민군의 재편성과정에서 조중연합사가 창설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원은 북한에게 절실하였으며 조중연합사의 영향력은 그만큼 더 강렬하게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¹⁾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50년 10월 이후 조선인민군의 재편성과정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의 역할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이 축적한 전쟁수행 경험을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중국인민지원군의 활동에 대한 선전도 하지 않았다.²⁾ 오히려 조선인민군은 소련에 의존한 군사력 건설의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종전 이후 1950년 말까지도 지속되었다.³⁾ 단적으로 1958년 1월 인민군 총참모장 리권무는 “우리 인민군대는 쏘베트

1)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북한지역에 입조하여 5차에 걸친 공세작전간 투입한 병력만 해도 70~80만 명이며, 이 중 사상자는 6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지팅스(John Gittings)는 주장한다. 중공군의 사망수치는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크다. 1953년 10월 23일 유엔군 사령부는 중공군 사망자를 90만 명으로, 밀렛(Allan R. Millet)은 100만 명을 육박한다고 추정한다.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6권: 한국전쟁의 영향』, (서울: 행림출판, 1992), p. 443.; Allan R. Millet, "Casualties", in: Spencer C. Tucker,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Santa Barbara: ABC-CLIO Publishers, 2010), pp. 112~115.

2) USSR Ambassador to the DPRK V. Ivanov, "CPSU Central Committe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KWP and the DPRK, 9 January 1957", in: Christian F. Ostermann, *CWHP Bulletin Issue No. 16: Inside china's cold war*,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8), p. 527.

3) 라주바예프는 북한이 소련식 군사체제를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미극동사령부 정보보고서에도 인민군은 '소련의 모조품'이라고 분석하였다. GHQ, UNC/FEC, *Command Report(Top Secret): April, May, June 1951*, (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5. 1 by NARA).

군사과학과 쏘베트 군대의 풍부한 전투경험을 부단히 섭취하면서 자기의 전투기능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군사지식의 원천을 소련군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았다.⁴⁾ 이후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전법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⁵⁾ 1960년대 북한주재 소련무관의 보고서를 보면 조선인민군은 소련군의 군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북한은 왜 1950년~1958년간 전쟁에 개입하여 북한을 회생시키고 전후복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노선을 조선인민군 재편성 과정에서 배제했는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중 양군을 공고히 유착시킨 것으로 보였던 조중연합사가 실제로는 어떠한 갈등의 동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조중연합사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 구조가 1950년 10월 이후 조선인민군의 재편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조중연합사와 조선인민군 재편성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다만 조중연합사의 성립배경과 발전에 대한 몇몇 연구를 통해 군사적 역할과 북중관계의 갈등상황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써 중국군사과학원에서 발간한 『항미원조전쟁사(抗美援朝戰爭史)』(2000)와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001)는 군사적 관점에서 조중연합사의 성립과 전쟁수행간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⁷⁾ 한편 이종석은 조중연합사의 성립이 김일성의 국내정치 권력의 공고화와 전쟁수

4) 리권무, 「영광스런 조선인민군」, pp. 8~9.;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역음(과주: 한울 아카데미, 2006)에서 재인용.

5)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3월 8일), 『김일성저작집』 제12권, pp. 159~179.

6) 「소련무관 페트로프 소장이 동독무관에게 전달한 정보(문서번호 26/62, 1962년 2월 23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통일연구원(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34.

7)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2』,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5), (원서: 中國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 (軍事科學出版社, 200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2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행에 미쳤던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⁸⁾ 양진삼(梁鎭三)은 북중갈등관계의 사례연구로써 조중연합사의 기원과 발전을 북한의 '내정간섭 우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⁹⁾ 주목할 만한 연구는 1953년 6월 미 8군 전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중공군 5차 공세(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¹⁰⁾로써 이 보고서는 조중연합사의 발전과정을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북한의 우려"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위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한 김일성의 '정권안보'의 관점에서 '조중연합사령부가 조선인민군의 재편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조중연합사는 김일성에게 외적 '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군사지휘기구이기 이전에 내적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정치 개입기구로 인식되었다. 조중연합사의 창설은 김일성에게 작전지휘권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이는 곧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했다. 중국은 조중연합사를 통해 북한 내의 연안계 정치세력들을 포섭하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김일성의 권력체계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은 군 재편성과정에서 연안계 인사들을 권력핵심에서 배제시키고 정권안보에 충직한 만주파 중심의 지휘부를 구성함으로써 권력 유지의 도구인 '군권'을 장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신속히 작전지휘권을 회복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소련의 대중국 견제와 군사지원을 등에 업고 전쟁준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소련일변도의 군사력 증강에 더더욱 매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과 전개로써 우선 2장에서는 조중연합사 창설의 기원과 배경을 고찰하고, 3장에서 조중연합사의 전쟁 수행간 표출되는 연합체제의 갈등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조중연합사를 둘러싼 갈등구조가 조

8)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중심, 2004), p. 194.

9) 양진삼,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0)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 June 3, 1953(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8. 1 by NARA)

선인민군의 재편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지휘구조 형성과 군사력 건설의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2. 조중연합사의 기원

(1) 지휘권 단일화의 문제와 조중연합사의 성립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결정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조중연합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50년 10월 19일로 거슬러 간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인 팽덕회는 1950년 10월 19일 신의주에서 박헌영을 만나 10월 21일 김일성을 대유동에서 조우하여 중국인민지원군의 출병규모와 모택동의 작전의도, 양군 간의 협조문제 및 지휘체통의 통일문제에 대해 협의했다.¹¹⁾ 여기서 김일성은 “이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데 우리는 지금 3개 사단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팽덕회는 조선의 상황은 자신들에게 달린 것을 직감하고, 작전의 주도권은 중국인민지원군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¹²⁾ 반면 김일성은 중국부대는 북한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작전지휘권은 당연히 북한지도부에 귀속된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였다.¹³⁾ 이날 협의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토의를 하지 않고 조선인민군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중국인민지원군 지휘부에 우선 박일우를 배치하여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동시에 당위의 부서기로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11) 홍인표 역, 홍학지 지음,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회고록.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p. 90. (원서: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解放文藝出版社, 1991))

12) 위의 책, p. 91.

13)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IHP Bulletin Issue 14/15: New Evidence on North Korea* (Washington, 2004), p. 12.

지휘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시된 중공군 1차 전역은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간의 오인 공격을 초래했고 팽덕회는 통일지휘가 절박한 것으로 인식했다.¹⁴⁾ 이에 11월 7일 팽덕회는 박일우로 하여금 만포에 있는 김일성을 만나도록 하여 적 후방작전, 배합작전, 포로정책과 함께 이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슈티코프와 바실리에프의 지령을 받는 김일성은 참모를 파견하여 통신연락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하여만 받아들이고 연합사령부는 물론 조중(朝中) 두 사령부를 근접시키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일성과의 협의에서 지휘권 단일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1월 11일 팽덕회는 김일성, 슈티코프, 팽덕회의 '3인 위원회' 구성안을 모택동(毛澤東)에게 보고하였고,¹⁵⁾ 11월 13일 모택동은 이 문제를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11월 14일 모택동은 고강(高岡)을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에 보내어 다음날 김일성, 슈티코프, 팽덕회와 함께 작전지휘통일과 군사정책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였으나 최후결정이 성사되지 못하고 2차 전역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¹⁶⁾ 이러한 도중 스탈린은 11월 16일 답전하여 중국이 양군을 통일 지휘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2차 전역이 종료된 12월 3일, 김일성은 북경에 도착하여 모택동, 주은래(周恩來), 유소기(劉少奇)와 회동하였다. 조선인민군은 이 무렵 5개 군단이 훈련과 정비를 마치고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작전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스탈린도 전보를 보내 북중 양 군대 지휘통일 문제에 대해 동의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동지가 정(正)이 되고, 북한 동지가 부(副)가 되는 것에 북한 노동당정치국 회의에서도 동의하였다."고 말하면서 조중연합사 창설에 동의하였다.¹⁷⁾

14) 王焰 主編, 『彭德懷年譜』(北京: 人民出版社, 1998), p. 341.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 한국전쟁관계 중국자료선집』(서울: 행정자치부, 2002), p. 202.

15)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공군의 한국전쟁사2』,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257.

16) 이날(1950년 11월 15일) 제2차 전역작전 방침에 대해 논의하면서, 슈티코프는 조중 양군은 마땅히 통일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슈티코프, 팽덕회로 구성되는 3인 소조와 조중 양군의 통일지휘문제에 대해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은 조중연합사를 창설하여 모든 작전범위와 전선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도록 하고, 후방동원, 훈련, 군정, 경비 등은 북한정부가 직접 관할하도록 하였다. 철도수송 및 수리 또한 조중연합사가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연합사령부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 사령부와 조선인민군참모부의 2개 기구로 나누어 한 사무실에 함께 있도록 하였다. 팽덕회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을, 북한 측 김웅이 부사령관을, 박일우는 부정직위원을 맡았으며 조중연합사는 대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내에서 문서상으로도 사용하도록 합의했다.¹⁸⁾

(2) 김일성의 망설임 : 군권(軍權)에 대한 집착과 대중국(對中國) 의심

북한 정권이 몰락과 붕괴위기에 몰리던 1950년 10월~11월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김일성이 조중연합사 설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조중연합사'를 둘러싼 북한의 반응을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표피적인 요인을 떠나 보다 심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분석해야 한다.

우선 1950년 10월 당시 북한 지도부는 심한 내홍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상륙 이후 전세역전을 맞아 10월 8

17)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p. 258.

18) 그러나 조중연합사의 존재와 실체는 전쟁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2008년에 해제된 미 극동사령부 정보보고서(FEC Command Report)를 보면, 한국전쟁 중인 1951년 7월에 이미 미 극동사령부에서는 조중연합사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파악하여 전투서열로 작성하는 등 이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GHQ, UNC/ FEC, *Command Report(Top Secret): July 1951*, (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5. 2 by NARA). pp. 37~40. 1953년 6월 미 8군 전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중공군 5차 공세(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에 따르면 조중연합사는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북한군의 전투부대들에 대한 '완전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 June 3, 1953(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8. 1 by NARA)

일 김일성과 박헌영은 김일성의 지하 집무실에서 전세역전에 대한 대응방법과 전쟁수행 노선에 대한 문제로 크게 다투었으며, 11월 7일에도 전쟁실패의 책임을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전해진다.¹⁹⁾ 또한 한 연구에서는 인천상륙 이후 중국에 파견된 조선노동당의 반김일성 파벌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파견하여 중국군의 파견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세역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김일성을 제거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중국지도부에 요청했으나, 모택동은 심사숙고 끝에 김일성에 대한 지지를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⁰⁾ 이러한 연구결과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인천상륙 이후 10월~11월 사이에 북한지도부 전체수준에서 전쟁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상당한 분열에 빠졌으며, 이것이 곧 권력투쟁 양상으로 비화되기 시작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다. 이 시기 김일성이 유엔군의 외부위협뿐만 아니라 내부권력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외부로부터(중국과 소련) 자신의 영도체제를 보장받는 것과 내부적인 군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외부위협이 극심했던 시기에 자신의 군권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김일성의 가장 본질적인 우려는 북한지도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김일성의 라이벌인 연안파의 영향력 확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¹⁾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김일성의 우려는 비단 조중연합사 창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갑자기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후 전세가 역전되어 후퇴를 하던 급박한 시기인 9월 21일 스탈린의 개인특사 자하로프 대장도 김일성에게 중국에 대한 원조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지

19) 1950년 10월과 11월의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내부갈등 격화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음.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서울 : 나남출판, 2004), pp. 444~463.

20) 반김일성파의 중국과의 김일성 제거에 대한 음모설과 중국 파병결정과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아래 문헌 참조.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p. 162~153, 277.

21) 양진삼, 앞의 책, p. 624.

만 북한 측은 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²²⁾ 북한은 일주일의 지난 9월 28일이 되어서야 정치국 긴급회의를 열고 소련과 중국에 대해 지원군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급박한 시기에도 김일성은 중국보다는 스탈린의 반응을 먼저 살피기 위해 9월 30일 전문을 보내어 “소련 측의 직접적인 군사원조”가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중국 및 다른 인민민주국가들에서 우리의 투쟁을 군사적으로 원조할 ‘국제’의용군 부대”를 창설해서 지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²³⁾ 김일성이 ‘국제의용군’ 형식의 파병을 스탈린에게 먼저 요청한 것은 바로 중국의 단독 개입에 대한 우려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과도한 자신감과 낙관으로 북한 자체역량으로도 충분히 당면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²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오랜 역사적 영향력 때문에 중국의 출병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소련의 원조를 더 선호했으며,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피하고자 했다.²⁵⁾

다른 한편 김일성은 심리적으로 과거 조선의 중국에 대한 역사적 조공관계에서 비롯된 주중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불안감의 이면에는 그 자신이 과거 만주 항일투쟁시기 중공지도부의 명령을 받던 동북항일연군 사장출신이라는 일종의 자격지심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1935년의 민생단 사건과 같이 중국인이 지휘권을 장악할 경우 북한이 또다른 유형의 차별과 마찰에 시달릴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혼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안계’라는 현실 정치적 위협의 결합이 조중연합사 창설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감과 우려로 연결되

22)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HP Bulletin Issue 14/15: New Evidence on North Korea* (Washington D. C. 2004), p. 11.에서 재인용.

23) 김광린 역,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도서출판 열림, 1997), p. 96.

24) 양진삼, 앞의 책, p. 587.

25) 위의 책, p. 587.

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3) 김일성의 선택 : 조중연합사의 성립과 소련의 견제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조중연합사의 창설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던 김일성이 11월 말부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²⁶⁾ 김일성이 11월 말부터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데에는 당시 전황이 공산군 측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조선인민군이 차츰 전투력을 복원함에 따라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 그리고 스탈린의 중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김일성은 공산권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군사적 상황에서 중공군의 남한 진격을 부추기고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분에 얽매인 논쟁보다는 현실적인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이었던 홍학지(洪學智)는 “조선인민군이 12월 초 38선 이남에서 복귀한 병력을 재편성하여 총 3개 군단이 전투력을 복원하고, 중공군에 의한 2차 전역이 성공적으로 전황이 풀림으로써 김일성은 적극적으로 참전시켜 달라고 조르는 지경이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²⁷⁾ 홍학지의 설명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김일성은 전황이 호전되던 1950년 12월 초에는 조선인민군의 적극적인 전쟁참여를 위해 지휘권이양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김일성의 권력체제

2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No. 60, 1950. 11. 24」,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 1950~1953』, 국사편찬위원회(과천, 2006), p. 217.

27) 홍인표 역, 홍학지 지음,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의 전쟁회고록. 중국이 본 한국전쟁』, p. 188. : 1951년 1월의 미 극동사령부 정보 보고서(Command Report)에서는 1950년 12월 28일 현재 북한군은 1, 2, 3, 4, 5, 8군단으로 구성된 약 173,297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51년 1월 28일까지 북한군 병력이 201,244명의 규모로 증강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북한군은 1950년 10월 초의 괴멸적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 약 2개월 만에 매우 신속한 속도로 군사력증강과 전투력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GHQ, UNC/ FEC, *Command Report(Top Secret): April, May, June 1951*, (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5. 1 by NARA).

에 대해 중국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신, 또는 적어도 중국에 대한 '견제체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소련지도부도 우려하고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²⁸⁾ 김일성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스탈린의 권위'를 이용하였고 스탈린의 지시가 하달된 후에야 비로소 최종 결심을 내리곤 하였다. 우선 팽덕회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논의로 공론화시키고, 이를 스탈린의 최종결심 구도로 확장함으로써 팽덕회를 비롯한 중국지도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인식을 불식시켰다. 따라서 스탈린의 지시가 '강압'으로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제동과 견제작용을 한 측면이 크다. 바로 1950년 12월의 조중연합사 창설 문제에 직면해서도 김일성은 "스탈린의 전보"를 명분으로 작전지휘권 이양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의 강요와 지시를 추종하는 방식이 아닌 스탈린의 '중재'와 '감독'하에 지휘권 단일화가 이루어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다.²⁹⁾

마침내 12월 7일 저녁 김일성은 팽덕회와 회담하여 12월 3일 북경에서 모택동과 합의한 바대로 조중연합사의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때 김일성은 "지휘에 직접 간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조선인민군 3군단은 지원군 9병단과 협력하여 작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송시륜(宋時輪)이 지휘하도록" 합의했다. 12월 8일 중공 당 중앙은 "중조 연합지휘부의 명의를 공개적으로 하달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실제적으로 조직하기만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대내적으로만 군 지휘부 및 독립사단의 사단 지휘부까지만 하달하지만, 관련 작전은 통일적으로 지휘한다"고 지시를 내렸다.³⁰⁾ 그러나 김웅은 전선에서 3개 조선인민군 군단(2, 3, 5군단)

28) 김철범, 『한국전쟁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0), p. 278.

2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 *Secret Security Information*, June 3, 1953. (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8. 1 by NARA)

30) 王焰 主編, 『彭德懷年譜』, (北京: 人民出版社, 1998), p. 347.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II: 한국전쟁관계 중국자료선집』, (서울: 행정자치부, 2002), p. 202.

을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일우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머물렀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에 중국어 실력이 매우 뛰어난 상교급 군관을 조장으로 하는 3~4명의 연락조를 파견하여 작전처와 유관 업무를 수행하였다.³¹⁾ 조중연합사 명령은 조선인민군에게는 연합사 명의로, 중국인민지원군 부대에게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 명의를 그대로 사용했다. 12월 상순 정식으로 창설되어 '연사(聯司)'라고 간략히 칭하고, 3차 전역을 시작할 때에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연사(聯司)가 통일하여 작전 지휘하였다. 그리고 조중연합사 창설과 관련한 제반합의 사항을 12월 8일 공식 문건으로 명문화하였다.³²⁾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조중연합사 창설 논의과정에서 김일성이 시종일관 우려했던 점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과 권력체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자신의 정권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연합사령관 팽덕회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외적으로는 소련의 견제세력을 이용하고, 내부적으로는 연안계의 영향력 확대를 제거하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김일성의 대중국 의심은 중국지도부의 북한지도부에 대한 멸시, 그리고 팽덕회에 대한 개인적인 굴욕감 등 심리적 요인과 결합되어 연합사 창설 이후 전쟁지도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3. 연합체제의 갈등과 발전

(1) 북중 갈등의 심화

조중연합사를 둘러싼 팽덕회와 김일성의 갈등이 분출된 것은 3차 전역에 서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중국인민지원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데 대해 반대

31) 홍인표 역, 홍학지 지음, 앞의 책, p. 189.

32)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p. 259.

했으며, 동부전선의 조선인민군 공격을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항의했다.³³⁾ 이어서 팽덕회는 3차 전역이 종결될 무렵 유엔군에 대한 추격전을 두고 김일성과 갈등을 겪었다. 특히 추격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 조선인민군은 단독 공격을 하려는 움직임마저 크게 일었다.

1951년 1월 10일 김일성은 시성문(柴成文)을 대동하고 군자리의 연합사령부에 가서 팽덕회, 등화(登華), 홍학지(洪學智)에게 조중연합사의 군사방침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였다. 팽덕회는 김일성의 희망사항에 기초한 낙관주의적 속전속결 사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중국인민지원군의 보충과 휴식을 위해 “2개월이 필요하며, 그중에 하루도 모자라서도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경적사상(적을 경시하는 사상)에 대해 경고하면서 연합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수”해도 좋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원한다면’ 직접 조선인민군 4개 군단을 지휘해서 남진하라고 격분하였다.³⁴⁾ 여기에서 스탈린이 직접 전문을 보내 팽덕회의 방침을 지지하고, 소련대사 라주바예프에게 팽덕회의 지휘권에 더 이상 간여하지 않도록 명령한 이상 추가적인 논쟁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김일성은 판단했다.³⁵⁾

이에 김일성은 1월 16에서 1월 18일간 팽덕회와의 회담에서 “조선인민군이 단독으로 남하하여 공격을 하는 것은 모험이며, 조선노동당 정치국은 토론을 통해 향후에 더욱 확실한 공격을 단행하기 위해 2개월 동안 휴식을 취한다는 중국 측의 건의가 정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함으로써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³⁶⁾ 물론 김일성이 팽덕회의 신중론에 진심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선인민군 단독으로 남하할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팽덕회에게 굴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33)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HP Bulletin Issue 3: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 C, 1993), p. 16.

34) 시성문의 인터뷰 기록, 『팽덕회 연보』, p. 466; 양진삼, 앞의 책, p. 601에서 재인용.

35) 홍인표 역, 홍학지 지음, 앞의 책, p. 172.

36) 1951년 1월 26일,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3차 전역 이후 벌어진 '추격전'을 둘러싼 군사적 방침에 대한 갈등의 이면에는 팽덕회의 작전지휘권 침해에 대한 불만과 김일성의 정치적 권위 실추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팽덕회는 김일성이 자신의 지휘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김일성은 자신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을 자신의 의지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대단한 굴욕감을 느꼈다. 특히 팽덕회와 스탈린의 비판은 김일성에게 있어 전략사상의 부재라는 비난으로 비취졌고, 이러한 비난은 곧 북한지도부 내의 전쟁실책 책임론과 맞물려 김일성의 영도체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날 김일성이 팽덕회에게 항의한 전략 방침에 대한 불만은 조중연합사를 둘러싼 북중 간의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했다. 1950년 12월 연합사 창설전후 시기 김일성과 팽덕회로 대표되는 북중 간의 갈등은 정치적, 심리적 차원의 요소들이 겹겹이 쌓인 중층적인 성격을 띠었다. 박갑동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 12월 21일 별오리 회의에서 김일성은 무정을 비판하고 제거하려고 군법회의에 회부하려 했으나, 중국인민지원군의 중재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것을 모면하였다고 한다.³⁷⁾ 또한 많은 북한지휘관들은 “중공군이 한달만 일찍 지원했더라면 모든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라면서 조선인민군의 후퇴와 손실의 탓을 중국에게 돌리기도 했다.³⁸⁾ 이에 대해 1~2차 전역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국인민지원군 일부 사령관들은 거만해지고 건방져져서 북한의 사령관들을 멸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하는 등 승리로 인한 자만이 넘쳐났다.³⁹⁾ 팽덕회도 김일성의 군사능력에 대해 비하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팽덕회도 김일성에게 “항전(2차 세계대전)기간 동안 당신은 만주에서 연군의 사장이었으나 나는 팔로군 부사령이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⁰⁾

37)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88), p. 139.

38)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HP Bulletin Issue 3: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 C, 1993), p. 16.

39) 두평, 「정치적 동원과 통제」, 『중국군 장군들의 한국전쟁 회고』, 공군본부(대전: 공군본부, 2004), p. 122.

4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319.

또한, 김일성은 팽덕회를 만나보기 힘들었으며 언젠가는 김일성이 팽덕회의 사령부에 갔을 때 중국인민지원군 보초에게 제지당한 후 장시간 억류당한 사건도 있었다.⁴¹⁾ 이러한 행위들은 중국지휘관들의 북한지휘관에 대해 명백한 조롱이었다.

이러한 정황들로 볼 때 김일성은 작전 지휘권 상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체면(face)'에 심대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다.⁴²⁾ 전쟁실패의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중국인민지원군 개입 이후 다시 '속승론'에 도취된 국내 정치파벌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적 열망과 요구를 김일성이 더 이상 관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공군에 의한 수모는 그의 정치적 권력체계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 갈등의 조정 : 팽덕회의 지휘권 보장과 김일성의 권위인정

3차 전역의 '추격전' 논쟁에 이어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북 양군 고급 간부 연석회의가 군자리 지원군사령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김일성, 김두봉, 박헌영 등 북한 주요책임자와 조중연합사의 김웅, 박일우가 참석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팽덕회, 중국인민지원군 각 병단 수장 및 사단 간부 등 총 122명이 참석하였다.⁴³⁾ 팽덕회는 3개 전역승리의 의미, 승리의 원인, 문제점, 정치사상 업무준비, 후근업무강화, 38선 이남지구의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41)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HP Bulletin Issue 3: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 C, 1993), p. 16.

42) 1953년 작성된 미 8군 분석보고서는 북한의 작전지휘권 상실을 "북한군의 중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예측화를 통해 발생하게 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체면(face)"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에서는 '체면'이 중요한 정치적 명분으로 기능한다.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 June 3, 1953.(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8. 1 by NARA)

43)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p. 301.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회의의 군사적 성격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 회의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날 회의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팽덕회는 그간 실추된 김일성의 '체면'을 살려 주고 다독거리면서 반대급부로 김일성과 소련대사의 작전지휘권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자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택동은 북중 간의 고급간부 연석회의에서 발표될 팽덕회의 연설문을 자신이 직접 검토·수정하면서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정책과 활동이 결정적이라는 어감"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⁴⁴⁾ 또한 이 초안을 사전에 김일성의 검토를 맡고 동의를 구하라고 팽덕회에게 지시한 데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김일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보고문에서는 김일성을 북한의 유일한 영수로 인정한다는 점과 조선인민군과 북한에 대한 중국인민지원군의 방자함을 경고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팽덕회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은 조선에서 5년 동안의 투쟁 중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면서 김일성의 행적을 칭송한 후 "중국인민지원군은 전심성의껏 조선인민의 영수 김일성 동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조선의 사정을 자기일과 같이 여기고... 마치 국내에서와 같은 사고와 행동으로 임하라"고 하면서 그간 중국인민지원군의 '거만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시정을 촉구했다.⁴⁵⁾

다시 말해 팽덕회는 김일성의 마음을 달래고 중국 군사지도자 및 북한 지휘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김일성의 영도력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지휘부 내의 김일성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 회의는 김일성의 권위를 모택동이 보증함으로써 그간 박헌영 일파와의 전쟁책임론에 시달리며 작전지휘권까지 내어주고 난 뒤 연안파의 세력확장에 대한 우려감을 느끼고 있을 김

44) 「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2冊」, (中央文獻出版社, 1988), pp. 43~44,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II』,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p. 112.

45)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1993), pp. 266~267,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II』,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2002), p. 113.

일성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팽덕회는 양군의 군사사상을 통일하여 자신의 지휘권을 보장받으려고 하였다. 속송론에 젖어 자체군사력의 공세종말점(작전 한계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김일성과 북한지도부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구전 관점의 전쟁수행에 일치된 의견을 모으도록 하였다. 실제 대다수의 북한지휘관들은 중국의 주장만 아니었다면 3차 전역기간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통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⁴⁶⁾

이에 김일성은 2월 4일 팽덕회를 방문하여 4차 전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팽덕회의 전쟁수행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김일성은 “제3차 전력을 치른 후 상하 모두 경적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적에 대해 충분히 헤아리지 않고, 적이 이렇게 빨리 반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4차 전역은 적의 전진을 저지하여 착실하게 전국을 타개하는 데 힘쓰고,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준비하여 장기전을 할 방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팽덕회의 지구전 관점에 동의를 표시하였다.⁴⁷⁾ 이로써 김일성은 사실상 팽덕회의 전쟁수행에 관한 지휘권 일체에 대해서 간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이후 이와 같은 회의는 다시 개최되지 않았으며, 조중연합사는 팽덕회의 지휘하에 5차 공세를 마무리 짓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협상과 병행한 소모전에 돌입하게 된다. 조중연합사의 주도하에 전쟁수행이 이루어지면서 김일성은 이 기간을 자신의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전투력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⁴⁸⁾

46)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HP Bulletin Issue 3: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 C, 1993), p. 16.

47)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p. 349.

48) 이종석, 앞의 책, pp. 197~198.

(3) 연합체제의 발전과 김일성의 인식

조중연합사 주도하의 전쟁수행체제가 공고해진 1951년 4월, 조선인민군 1, 2, 3, 5군단은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하에 4, 6, 7군단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통제하에 해안방어위주로 작전지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1년 5차 전역이 종료된 7월부터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조중연합사는 중공군 공세시기와 같은 견고한 지휘권을 발휘하기보다 보다 느슨한 형태로 융통성있게 지휘체계가 조정되었다. 특히 팽덕회가 1952년 4월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조중연합사의 실질적인 위상은 많이 약화되었고, 중국인민지원군이 대리 사령관 체제로 접어들면서 김일성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⁴⁹⁾ 이 시기부터는 전술적 수준에서 제기되는 작전소요에 따라 하부구조에서 탄력성있게 연합지휘체계가 설치되어 운용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1952년 6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중국군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조정하여 제19병단, 제3병단, 제20병단, 조선인민군 전선지휘부를 구성하여 지휘케 하고, 동해안지휘부와 서해안지휘부를 창설하여 동해안 상륙작전에 대비케 하였다.⁵⁰⁾ 1952년 12월부터 전면전 확대 논의가 거세지자 조중연합사는 후방 양측방에 대한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북한지역의 동서해안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서해안의 지휘기구를 조정 보완하여 서해안 연합지휘소를 보강한 서해안 부대 연합지휘부를 구성하였다.⁵¹⁾ 이러한 전술적 차원의 지휘통일은 공군

49) 위의 책, p. 123.

5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 항미원조전사』, (서울 : 세경사, 1991), pp. 228~229. (원서: 中國人民解放軍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部,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軍事科學出版社, 1988))

51) 이러한 지휘체계는 이미 4차 공세의 1단계 작전때 인민군 2, 3, 5군단은 김웅의 지휘하에 두었던 반면 1군단은 중국의 지휘하에 두었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동구 역,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앞의 책, pp. 346~347. : 중소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반 북한과 중국사이에 서부연합 함대사령부의 구축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북한과 중국사이에 연합지휘 기구 구성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쉬레터 동독무관, 「북한의 군사정책에 관한 몇가지 문제(문서기록 No. 2/63)」, (북한주재동독 대사관, 1963. 3. 21), 통일연구원,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p. 52.

에도 적용되어 조중 공군연합집단사령부도 제의되었다.⁵²⁾

그러나 군사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었던 연합체제의 이면에 중국의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었다. 북한지역의 지방 관리들은 중국지휘관들이 제멋대로 인민들을 건설작업으로 동원하고, 마구잡이로 숲을 벌목하고, 가축을 도살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공군은 북한인민들의 열악한 조건을 비하하고 북한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중공 중앙위원회로 보내는 한편 인민군의 핵심지휘관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했다. 조중연합사에 파견된 북한 대표인 박일우가 대표적인 인물로서 중국은 박일우를 김일성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박일우가 조선노동당의 통치 권위를 무시하면서 당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서 “마치 모택동의 개인특사”인양 행동한다면서 격분하기도 했다.⁵³⁾

조중연합사와 연안파는 김일성의 단순한 심리적 우려를 넘어서 상당한 결속력과 권력공조관계를 형성하였다. 김일성은 북한군의 중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화를 통해 발생하게 될 정치적 비용을 극히 우려했다. 김일성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조선인민군의 신속한 전투력 복원과 함께 작전지휘권을 회복함으로써 중국의 내정간섭을 차단하고 권력의 핵심기체인 군권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김일성의 노력은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소련의 의도와 결합되어 조선인민군의 소련일변도의 군사력 건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지 조선인민군의 전투부대들에 대한 완전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던 조중연합사는 조선인민군의 전투력 복원이 복원되면서부터 차츰 그 기능이 약화되었고, 1953년 6월에 와서는 양군 사령부가 '대등한(equal)' 위상을 갖게 되었다.⁵⁴⁾

52) 이종석, 앞의 책, p. 171. : 다만 해군은 재편성 시기 소련 군사고문관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조직되고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통제를 받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2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56.

53)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HP Bulletin Issue 3: From the Russian Archives*, (Washington D. C. 1993), p. 16.

54) 김일성의 원수료의 호칭 변경, 북한 정보 및 정치조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

4. 조선인민군의 재편성

(1) 만주파 중심의 지휘구조

조중연합사 창설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김일성은 연안파의 세력을 차단하고 자신의 군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한국전쟁 이전에도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의 수뇌부를 만주파 출신 위주로 보직시켰다. 그에게 있어 군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주권을 담보하는 외적기능보다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권력의 유지와 안정의 기제, 즉, 권력 확립의 도구였다.⁵⁵⁾ 김일성이 해방 이후 북한의 정권형성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선인민군에 대한 군권장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통성이 되었다. 다시 말해 김일성에게 정치권력의 장악이란 곧 조선인민군에 대한 절대적 통제를 말하는 것이었다.⁵⁶⁾ 이러한 이유로 해서 김일성은 자신의 경쟁자를 의식해 6·25전쟁 발발전 전쟁계획 수립시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안계를 철저히 배제해 왔던 것이다.⁵⁷⁾

이러한 맥락에서 조중연합사는 김일성의 정권안보에 심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우선 조중연합사 창설 초기 파견되었던 박일우와 김웅이 중국을

한 소련의 영향력, 양군의 완전히 독립적이고 뚜렷한 병참부대 운영 등은 조선인민군의 점증하는 위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Headquarters Eighth United States Army, *Chinese Fifth Phase Offensive Slides*, June 3, 1953. (RG550 Records of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declassified 2008. 8. 1 by NARA)

55) 김용현, 「북한 군사국가화의 기원」, 『북한의 정치 2』, 북한연구학회 편(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301.

56)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1).

57) 민보성 작전국장이었던 유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 5월 초 강건 총참모장이 건네준 러시아어로 작성된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번역하는 과정에 비밀유지를 위해 중국연안파 출신 장교들은 제외시켰고 소련파 출신들만 모여 민보성 별실에서 '우리말'로 재작성했다고 한다.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한국발전연구소, 1991), p. 159.

등에 얽고 독자세력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겼을 것이다.⁵⁸⁾ 이러한 염려는 비단 김일성뿐만 아니라 소련에게도 심각한 관심사로 작용했다.⁵⁹⁾ 또한 연안계 출신의 군 고위직 군관들의 두드러진 능력이 이와 결합된 또 다른 우려로 작용했다. 전쟁기 연안계 출신의 지휘관인 5군단장 방호산, 1군단장 리권무 등은 만주 빨치산 출신인 2군단장 최현, 3군단장 류경수, 6군단장 최용진, 7군단장 리영호에 비해 작전수행 능력면에서나 인품 및 부대 통솔력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⁶⁰⁾

따라서 1950년 12월 21일 제3차 중앙위원회 보고에서 김일성은 6개월의 공세기간과 그 과오에 대한 비판에서 연안파에 대해서 가장 증오에 찬 공격을 퍼부었으며, 그 중 그의 라이벌인 무정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한다.⁶¹⁾ 조선인민군의 전쟁 수행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잘 알려진 이 별오리 회의는 단순한 군사전략적 합의보다는 김일성의 정치적 경쟁세력에 대한 척결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⁶²⁾ 이러한 연안파에 대한 시기와 견제는 1951년 군자리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방호산에 대한 비판에서도 여실히 엿보인다.⁶³⁾

1951년 7월 이후부터 전선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 팽덕회의 비호를 받는 연안계에 대한 김일성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52년 4월 팽덕회가 조중연합사를 떠나자 김일성은 중국 측과 상의하여 조중연합사에 파견되었던 북한 지도자들을 인사조치하기 시작했다. 1952년 7월 6일 조중연합

58) 이종석, 앞의 책, p. 123.

59) 김창순, 『북한 십오년사』, (지문자, 1961), p. 124.; 김철범, 앞의 책, p. 278. 재인용.

60) 김광수, 앞의 책, pp. 102~103.

61) 여기서 김일성은 만주파, 소련파, 남로당계, 연안계 등 모든 파벌의 고위군관들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으며, 여기서 보직해임 및 강등된 고위직 군관은 군단장 1명, 사단장 6명, 사단참모장 1명, 연대장 6명 등이며, 새로 보임된 인원은 군단장 2명, 군단참모장 2명, 사단장 7명, 사단참모장 4명, 보병연대장 24명 등 총 39명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2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67~68.

62) 박갑동,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88), p. 139.

63) 김일성, 「우리의 전범으로 싸워야 한다」,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들과 한 담화 1951년 1월 28일), 『김일성전집』 제13권, pp. 94~97.

사 부사령 겸 인민군 전선사령관인 김웅을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보직시켜 민족보위상인 최용건을 돕게 하고, 인민군 전선사령관에 김광협을 임명하고 조중연합사 부사령을 최용건이 계승한다고 통고했다.⁶⁴⁾ 또한 박일우를 1953년 2월 5일 체신상으로 임명한 후 평양으로 소환하고 조중연합사 부정 치위원으로 최용건이 연합사 공작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53년 봄에는 5군단장 방호산을 군사대학 학장의 한직으로 보임시키고 후임으로 만주파인 최용진을 임명하는 등 1953년 초까지 조중연합부사령관, 전선사령관, 6개 군단중 4명의 군단장을 모두 만주빨치산 출신으로 채웠다.⁶⁵⁾

연안계과 결합된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에서 현실로 극명히 나타났다. 여기서 모택동은 “김일성은 바보 같은 전쟁을 시작했으며 그 자신도 열등한 인물이다. 김일성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비난하였고, 팽덕회도 김일성의 군사능력에 대해 비하하고 박일우를 높게 칭찬하였다.⁶⁶⁾ 더욱이 팽덕회가 직접 평양으로 가서 종파주의자로 몰려 숙청당한 박일우를 석방시킬 것과 그가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⁶⁷⁾ 또한 팽덕회는 김일성에게 압력을 가하여 8월 종파사건에 가담한 친중인사들을 복권시킬 것을 촉구함으로써 김일성의 권력체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혔다. 이후 김일성은 ‘반종파투쟁’ 과정에서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 진행과 함께 연안과 군인에 대한 가차 없는 숙청을 전개하여, 1959년까지 김웅 대장과 총참모장 리권무 상장, 그리고 간부부장 리립 소장을 비롯한 연대장급 군관까지 모두 제거하였다.⁶⁸⁾ 이로써 김일성은 인민군을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친위대(親衛隊)성격의 정치적 도구로 재조형하였다.

64) 이종석, 앞의 책, p. 124.

65) 김광수, 앞의 책, p. 106.

66) Nobuo Shimotomai, "Pyeongyang in 1956", in: Christian F. Ostermann, *CWIHP Bulletin Issue No. 16: Inside china's cold war*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8), pp. 460~461.

67) James F. Person, "New Evidence on North Korea in 1956", in: Christian F. Ostermann, *CWIHP Bulletin Issue No. 16: Inside china's cold war*, (Washingto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8), p. 453.

68) 김광수, 앞의 책, p. 119.

연안과의 대거 숙청이 조선인민군의 전투수행능력에 미친 파급효과는 컸다. 김일성의 권력집단으로 이해되는 만주파 간부들이 대거 보직됨에 따라 현대전에 부합한 작전지휘능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생겨났다. 게다가 1950년 10월 이후 “정권 위기시”에 조중연합사에 작전 지휘권을 넘겨준 조선인민군 지휘부는 향후 독자적인 위기관리 및 전쟁기획능력이 결여되어 전후 군사력 건설과정에서 심대한 가치혼란을 겪게 된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1962년 북한군에 대한 소련무관의 평가를 보면 조선인민군의 가장 큰 특징으로 “민족보위성 간부들이 대규모 훈련과 작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등 고위간부들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작전계획수립 및 군대지휘의 문제점”을 꼽고 있다.⁶⁹⁾

(2) 군사노선의 혼재와 소련중심의 군사력 건설

조중연합사 창설 최종합의시 모든 작전범위와 전선에서의 활동은 조중연합사에 위임하고, 북한정부는 후방동원, 훈련, 군정, 경비만을 담당함으로써 작전에 관련된 군사적 지휘문제에 대해서 김일성은 일체 간여할 수 없었다. 즉, 김일성의 권한은 조선인민군의 재편성과 재조직에 중점이 있었다.⁷⁰⁾

따라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의 신속한 양적 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신속히 전열을 정비하고 독자적인 전쟁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작전지휘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군사지원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우방인 소련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욕구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우려한 소련의 의도와 맞물려 충족될 수 있었다. 소련이 군사고문

69) 통일연구원, 「소련무관 페트로프 소장이 동독무관에게 전달한 정보」, (문서번호 26/62, 1962년 2월 23일), 『독일지역 북한기밀 문서집』,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6), pp. 32~33.

70) 시성문의 인터뷰기록 : 1950년 12월 6일 모택동이 팽덕회에게 보낸전문: 1950년 12월 7일 팽덕회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 : 『팽덕회 연보』, p. 453.; Shen Zhihua, “Sino-North Korean Conflict and its Resolution during the Korean War”, i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CWIHP Bulletin Issue 14/15: New Evidence on North Korea* (Washington D. C, Winter 2003-Spring 2004), p. 14에서 재인용

단을 통해 대대적인 군사지원을 함으로써 북한군은 교육훈련, 교리, 전술적 행동에 관한 부대훈련뿐만 아니라 간부양성 교육에 있어 철저히 소련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인민군은 “거대병(gigantomain)에 오염되어... 이들은 모두 우리 소련 군대를 그대로 모방하려고만”하는 소련식의 일색이었다.⁷¹⁾

이에 조선인민군은 1950년 10월 소련 군사고문단의 주도하에 북한 북부 지역에 3개 군단사령부 예하에 9개 보병사단과 특수부대를 창설했고, 이 부대들은 무장, 훈련,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만주지방으로 이동하였다.⁷²⁾ 전황이 급박한 가운데에서도 5개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미군과의 지난 전투경험을 토대로 한 산악조건하에서의 포위 및 적 후방돌파와 연계한 소부대 훈련을 실시한 이후 1951년 1월에는 부대들이 자체무기를 보유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⁷³⁾ 조선인민군은 195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52개 부대 및 기관을 해체하여 전투지원부대의 조직편제와 정원구조를 정리하고 과잉의 상부 구조 내에서 후방시설을 해체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향상시켰다.⁷⁴⁾ 이로써 조선인민군은 1951년 4월에 이미 총참모부, 최고사령부, 각 병과 사령부 등의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전선사령부 및 예하 4개 군단(1, 2, 3, 5군단), 그리고 4, 6, 7군단을 포함한 총 7개 야전군단을 편성 완료하여 전투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한 상당한 수준의 전투력을 구비하게 되었다.⁷⁵⁾

그러나 양적 팽창을 지향하던 김일성의 군사력 증강 방침은 순탄하게 진

71) 「평양주재 소련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1년 1월 31일자 암호전문 제 500316/sh호」, 김광린 역,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앞의 책, p. 143. 재인용

72) 「소련군 총참모부 제8국, 암호 전문 제 600584/sh호, 1950년 10월 31일」, 김광린 역,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앞의 책, p. 129. 재인용 : 이때 소련군사고문은 90명의 소련장교들이 훈련 업무 및 사단편성을 돕지 않으면 전투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보고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2: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pp. 58~62.

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 2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pp. 58~62.

74) 위의 책, pp. 58~62.

75) 위의 책, p. 63.

행되지 않았다. 이 시기 조선인민군의 재편성과정은 최일선의 작전사령관인 팽덕회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연합작전 소요와 후방지역 해안방어에 소요되는 전투력을 고려하여 모택동과 스탈린의 의도에 맞춰 조정되었다. 물론 김일성은 이때도 팽덕회의 의견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팽덕회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51년 1월 16일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만주에 훈련받는 병력 10만 명을 춘계공세를 대비하여 조선인민군의 각 군단으로 배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대를 15개 사단으로 감축할 것을 제의한 적이 있다.⁷⁶⁾ 이에 팽덕회는 1월 19일 김일성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나 군단 편성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마찰을 빚는다.⁷⁷⁾ 그러나 1951년 1월 30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 양적으로 방만한 조선인민군 부대를 감축하고 정예화할 것을 지시하자,⁷⁸⁾ 김일성은 부대개편에 대한 최종안에 대해 즉각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⁷⁹⁾ 또한 1951년 3월 1일 모택동이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3교대 순환제'의 전투부대 운용을 채택하면서 조선인민군도 연속적인 병력 투입전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단 숫자를 8개에서 6개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 팽덕회가 "스탈린의 제안"을 토대로 김일성에게 부대조정을 조언하자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⁸⁰⁾ 이렇듯 김일성은 스탈린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76)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보낸 1951년 1월 16일 암호전문」, 김광린 역,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앞의 책, p. 135. 재인용.

77) 「팽덕회가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월 19일자 암호전문 제 15994호」, 위의 책, p. 138. 재인용.

78) 스탈린은 1951년 1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민군의 28개 사단(전선에 19개 사단, 만주에 9개 사단)은 장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하면서, 사단수를 23개 미만으로 편성할 것을 지시한다.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 에디터, 2003), pp. 236~237.

79) 부대전투력을 높이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 스탈린이 추천한 군단 수와 사단의 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단감축을 1951년 2월 7~13일 간의 작전 이후 단행하겠다고 한다. 「평양 주재 소련대사가 스탈린에게 보낸 1951년 2월 4일자 암호전문 제500361/sh호」, 김광린 역,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앞의 책, p. 144. 재인용.

80) 「모택동이 스탈린에게 보낸 1951년 3월 1일자 암호전문 제17255호」, 위의 책, p. 149. 재인용.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견제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때 조선인민군은 팽덕회의 작전소요 제기를 감안한 형태로 구조가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교육과 장비지원은 소련이 담당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처럼 연합사 체제하에 김일성의 군 재편간 당면한 최대의 딜레마는 조선인민군의 양병과 용병이 이원화되었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현대 정규전을 기초로 소련식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병력들이 유격전을 구사하는 팽덕회의 전쟁지휘하에서 작전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의 사상과 행동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곧 연합작전간 갈등으로 전이되었다. 단적으로 라주바예프는 1951년 4월의 보고서에서, 조중연합사의 창설 이후 중국인민지원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한 조선인민군의 군단 군관들 사이에 부대지휘 및 인원교육에 일부 유격대식 방법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유격대식 전투수행 방법인 협의회와 집회에서 명령에 대해서 토론하는 등의 방법이 무기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⁸¹⁾ 이렇듯 상이한 군사사상에 기반을 둔 소련식과 중국식의 노선갈등은 군사적 목표설정에서부터 정치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노선 혼란은 김일성의 속승론에 대한 열망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야전실상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연안계에 대한 의혹 등과 결합되어 중국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다.

조선인민군 내에 이러한 “기형적 현상”이 많이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조중연합사에 배속된 군단들에 대해 사업방식을 비난하는 공식적인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⁸²⁾ 작전지휘권이 없는 그가 정치력 발

81) 이러한 식의 갈등 현상은 특히 조중연합사의 지휘하에서 작전을 하던 1, 2, 3, 5군단에서 목격되었다. 이 군단들 소속의 지휘관 및 정치일꾼들은 상급 지휘관의 전투명령을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지대 구성원 집회에서 “공격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를 토론하게 한 후 집회에서 상급지휘부의 명령에 일치하는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제3군단과 5군단 예하 모든 부대들에서는 전투 후에 부대구성원들 앞에서 ‘자아비판’, 즉 실책에 대한 반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고 묘사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2: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p. 77, p. 81.

8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 군사관계 사료총서2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p. 82.

회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다고 김일성이 전쟁수행을 주도하여 전승을 달성할 만한 독자적인 군사사상과 명확한 전략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신속히 '강군(強軍)'을 육성하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소련에 보다 확실히 기대는 것이었다.

5. 맺 음 말

본 연구를 통해 조중연합사는 조선인민군의 재편성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중연합사가 창설단계부터 북중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했던 것은 무엇보다 김일성의 '정권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중연합사의 창설은 곧 북한 연안과 세력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군권 장악에 더 몰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내정에 지속적으로 간섭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의 제도와 관습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었기 때문에 '점령군'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김일성은 중국이 지원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연안과와 결합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견제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김일성의 노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인 1958년에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가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중국의 내정간섭과 정권안보에 대한 침해 우려 때문에 김일성은 외부적으로는 소련의 견제가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인민군의 재편성은 더더욱 소련일변도로 기울어졌다. 당시 조선인민군에게 교육훈련과 장비를 지원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우방이 소련이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일성은 1954년 11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소련군을 "위대한 쏘련군대"라 치켜세우면서 소련군을 모델로 한 군사 현대화

를 강조하였다.⁸³⁾ 이에 따라 1951년부터 1959년까지 각종 소련군사학교에서 수학한 북한 군인의 수는 약 1,500명에 이르렀으며, 소련의 대대적인 군사지원에 힘입어 1950년대 인민군은 지상군과 공군 전력면에서 남한군에 대해 질적인 우세를 달성할 수 있었다.⁸⁴⁾ 이처럼 1960년 초까지도 “조선인민군에 대한 군사고문단은 소련군으로만 구성되어, 중장을 고문단장으로 하는 대사관 무관실이 막대한 기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북한군은 소련에 경사된 군사력 건설을 추구하였다.⁸⁵⁾

끝으로 “조중연합사와 조선인민군”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첫째, 북핵사태와 천안함 사건이 지배하는 최근의 동북아 안보정세에서 북중관계의 본질적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된다. 본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 내부권력이 중국과 연계될 시 북한 권력체계 자체에 심대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군사적 차원에서 유사시에는 북중 양군이 신속한 연합체제로 전환될 능력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확장하여 사회주의 이념의 동질성을 기초로 성립된 북중군사동맹이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군사동맹과는 어떤 차이점과 유사성을 갖는지 ‘협력과 갈등’의 관점에서 비교 연구한다면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북한개입과 관련된 파급효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조중연합사를 통해 이식된 중공군의 ‘전략사상’이 조선인민군에게 미친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조선인민군 군사전략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일성의 ‘정권안보’라는 관점에서 이행된 조선인민군의 ‘유형적’ 군사력 건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83)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 1954년 12월 23일」, 『김일성 군사논선』, 중앙정보부(서울: 중정, 1979), p. 191.

84) 김광수, 앞의 책, p. 116.

85)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동북아시아과, 「북한사정」, 1960년 1월 16일, 우병국, 김하영, 곽진호 외, 『통일연구원 기초연구총서 6 : 북한체제 형성과 발전과정 문헌자료 : 중국, 미국, 일본』,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387~388.

그러나 실제 조선인민군은 조중연합사와의 작전 경험을 통해 군사 현대화, 보급의 중요성, 정치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조선인민군의 독자적인 전략사상체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김일성 스스로도 현대적 군사기술과 방어진지 공사, 사상의식의 중요성, 정보공작과 와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등 모택동의 군사사상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⁸⁶⁾ 따라서, ‘군사사상’의 관점에서 연합작전간 조선인민군에게 자연스럽게 이식된 ‘무형’적 군사력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전략’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0. 7. 5, 심사수정일 : 2010. 7. 16, 게재확정일 : 2010. 7. 27)

주제어 : 팽덕회, 김일성, 정권안보, 북중갈등, 내정간섭, 불신, 연안파, 권력투쟁, 만주파, 소련일변도

86)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제324군 부대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군사논선』, 중앙정보부(서울: 중정, 1979), p. 196.: 김일성은 “적군의 와해사업을 강화하며 군대가 포로서만 적을 잡으려 하지말고 적군의 와해사업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중국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였다. 김일성, 「인민군 당 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결론연설: 1969년 1월 6일에서 1월 14일까지」, 중앙정보부, 『김일성군사논선』, 중앙정보부(서울: 중정, 1979), p. 184.

<ABSTRACT>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 and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ts Impact on the
Reorganization of NKPA

Kim, Tae-hyun

This research begins with a question "why the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excluded the experience, military doctrine and guideline of Chinese Communist Forces(CCF) during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even though the CCF's military intervention contributed to save North Korea from collapse-crisis in the war?". This phenomenon is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that a military alliance between two nations normally binds and consolidates its relationship strong together, and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 mutual norm and culture. This paper, focused on the dynamics of *Kim Il-sung's* "regime security" and "conflicting interaction between two nations", explores a impact of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on the Reorganization of NKPA in the era from October 1950 to the end of 1950's.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s: First, the CCF-NKPA relations at the highest levels during the creation of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conduct of the Korean War were characterized as a tension and conflict, not as friendship.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which is created in

December 1950 for the purpose of unity of commands for two forces, was perceived by *Kim Il-sung* not only as a military command defending an alliance's common interest against external threats, but also as an political institution intervening in the North Korean internal affairs. The Establishment of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meant to *Kim Il-sung* a "lost" of his own operational command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n expansion of chinese influence over the North Korea. The Chinese really attempted to draw towards themselves the commanders of the NKPA, and were not ashamed to interfere in the internal affairs of North Korea. This all made *Kim Il-sung* anxious about his regime security.

Consequently, *Kim Il-sung* intended to prevent *Peng Dehuai* (Commander of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from expanding his power over the *Yenan*-faction by introducing the Soviet in keeping a balance of power between two powers. *Kim Il-sung's* Mistrust against the chinese leadership was mixed with his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 that he had experienced during the Anti-Japanese War in the 1930s and in the winter 1950-1951. He preferred therefore to rely on the soviet side.

Second,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wo nations had a lasting impact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KPA in two senses. On the one hand, *Kim Il-sung* stuffed the core position of NKPA's leadership with a Partisan-faction, so that he could seize the military power as an instrument for making his political power indisputable. The "Military" functioned for him rather an instrument for keeping his own political power internally, than an protecting force ensuring the sovereignty and survival of the national state externally. He succeeded to make the NKPA loyal to protect his own political status.

On the other hand, *Kim Il-sung* was more dependent on the soviet side to keep a balance against the chinese. Under great assistance and support from the soviet he attempted to regain the military capabilities. *Kim Il-sung's* plan was consistent with a intention of soviet that had a fear of an expansion of the Chinese over North Korean. The Training,

military doctrine, tactical guideline during the reorganization of NKPA was accordingly influenced strongly by the soviet military thoughts and systems. The sole alternative that *Kim Il-sung* could select was leaning to the soviet side, considering an increasing influence of the chinese and their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Last but not least, the subject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NKPA” needs studying more carefully with a deeper analysis in twofold respects. The Sino-North Korean military alliance nowadays is a key factor to understand the current security structure of the north east asia that is symboliz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Cheonan*-warship attack. Moreover, this helps us to prepare for the Contingencies in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subtle analysis on the above mentioned “dynamics of the politico-military relations of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can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lead to a closer approach to the entity of so-called “*Juche*-strategy of NKPA” by clarifying the transfer-process of the Chinese traditional military thought to the NKPA through the bridge “the CCF-NKPA Combined Forces Command” sixty years ago.

Key Words : Peng Dehuai, Kim Il-sung, Regime Security, Chinese-North Korea Conflict,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Mistrust, Yanan-faction, Power Struggle, Partisan-faction, Leaning to Soviet Side